

S/W엔지니어 출신의 유망중소기업 / 우수벤처 기업 사장이 말한다.



㈜웹로그/대표이사 김장원

현 재 정부의 각 부처가 제시 또는 실시하고 있는 벤처기업 지원정책은 자금지원 일색이다. 다시 말해 이는 현재 벤처시장이 직면한 시장정체성에 대한 단순한 자금지원일 뿐이며, 이는 결국에는 모든 벤처기업에게 빛만을 남겨주게 될 것이다.

우리가 언급하는 벤처기업은 두가지 조건이 필요하다. 첫째는 기술의 독창성이며, 둘째는 그 시장이 해외이어야 한다고 믿는다. 과거 70, 80년대에는 아무리 좋은 노래가 히트해도 가수가 돈방석에 앉는 것은 쉽지 않았다. 지금 H.O.T.나 서태지가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성숙했기 때문이다. 현 정부도 맹목적인 돈 빌려주기/나눠주기를 중단하고, 벤처기업도 단순히 자금난을 토로해서는 안된다.

정부의 지원정책은 시장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

며, 따라서 지쳐있는 당나귀를 밀거나 당기기 보다는 적당한 위치에 당근을 한 보따리 놓아주기를 바란다. 벤처기업 역시 아직 형성되지도 않은 국내시장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해외시장으로 돌아서야 하며, 해외시장에서 인정 받지 못한 제품을 엄마 치마폭에 늘어놓아서 안 될 것이다.

결론적으로, 현재 집행중인 막대한 자금을 창업지원, 기술개발 등 목표가 불분명한 곳에 투자하기 보다는 중앙정부부처,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, 벤처기술의 활성화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다.

현 정부는 난파한 배의 선장과 다름없다. 몇 개 안 되는 구명선에 누구를 태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. 결국에는 바다에서 건디지 못할 나약한 이들을 실어 보낼 것인지, 아니면 풍랑을 이기고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젊은이들을 실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. 죽어가는 나무에는 비료를 주지 않는 법이다.